

## The effect of after school extensive reading classes in elementary school English Zone

장 미 립 (전주덕일초)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EFL상황이라 영어 입력(input) 기회가 적다. 그리고 학생들이 영어 동요나 동화에 어려서부터 노출되는 것에 비교하면 문자언어 도입 시기가 늦은 편이다. 총체적언어교수법(Whole Language Approach)은 학습자들이 실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재미로 읽고 쓰는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총체적으로 언어를 익힐 것을 주장하는데(배두분,2004), 이 입장에 비추어보면 문자언어를 배제한 3학년 1학기 영어교육상황은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학년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문자언어 자료로 영어 원서를 다양하게 접하게 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3학년에서 영어독서반 활동을 희망한 7명(남3, 여4)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영어체험실에서 독서 지도를 하고,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정의적 태도와 읽기 능력의 변화과정을 관찰하고자 한다.

가. 3학년 학생 수준에 맞게 학기별 독서지도법을 구안한다.

나. 학생들이 영어독서를 하며 영어에 대한 정의적 태도와 읽기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본다.

### II. 연구의 실제

#### 1. 연구 대상 및 실태

전라북도 전주시 D초등학교 3학년 학생 7명(남3, 여4)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전주시 D초등학교 3학년 세 학급 74명 중에 독서반 활동을 신청한 7명을 대상으로 1학기 16주, 2학기 16주에 걸쳐 32주간 실시한다. D초등학교는 개교한지 25년 된 학교로 전주공업단지와 전주천(가르내천)에 인접해 있고, 결손가정이 많아 복지대상에 속한 가정이 전체의 50%가 넘는 영세한 학군에 속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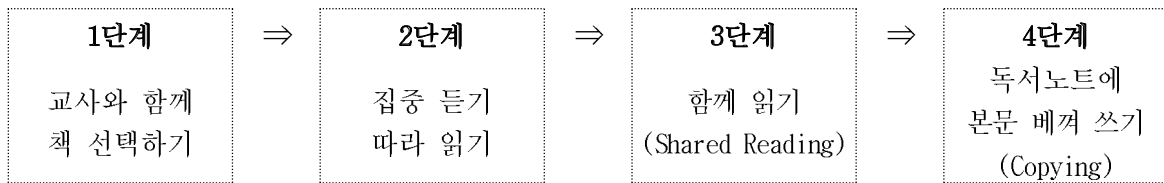
연구 대상 어린이들의 영어 학습 경험에 대해 면담을 한 결과, 7명 모두 3학년 이전에 영어학원이나 학습지 공부를 한 학생은 없었고 영어책을 읽은 경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수업에 활용된 책 외에는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 설계

1) Early Reader단계 독서지도법 구안

3월에 교과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3학년 학생들에게 3월 21일자로 독서반을 개강하여 알파벳을 배운 뒤 기초 어휘를 습득하면서 읽기의 기본을 다지는 단계로 한 학기 동안 진행한다. 이 시기의 독서지도는 학생들이 문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휘력이 증가하면서 단순한 문자의 식별이 아닌 문장의 독해가 가능하며 소리 내어 읽기의 초기 독서기술을 구사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책 선정은 Phonics와 Sight Word 학습을 목적으로 한 리더스북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준에 맞는 단계의 책을 여러 권 권하면 그 중에 학생이 읽는 순서를 정했다. 2단계에서는 교사가 책을 한 번 읽어주고 학생은 눈으로 읽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따라 가며 잘 듣는다. 그 다음 의미 단위에 따라 교사가 읽으면 학생이 따라서 읽는다. Shared Reading 단계에서는 전체 이야기를 읽은 후, 스토리에 대해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반복되는 구절이나 단어를 함께 읽고 뜻을 파악하며, 교사와 학생이 한 문장씩 번갈아 읽는다. Copying 단계에서는 본문 내용을 자신의 독서노트에 대, 소문자를 구분하고 구두점과 띄어쓰기에 유의하면서 1회 적는다. 읽기가 익숙해지면 교사 앞에서 책을 보고 스스로 읽으면 독서노트에 책 제목과 읽은 날짜 등을 간단히 기록하고 확인도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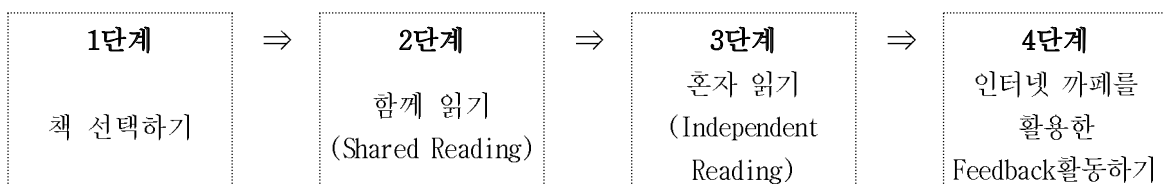
<표1> Early Reader단계 독서 순서

2) Early Fluent Reader단계 독서지도법 구안

1학기에는 개개의 학생들이 읽기를 준비하는 시기였다면, 2학기에는 본격적인 읽기를 시작함에 있어 학생들이 같은 책을 읽고 생각과 느낌, 내용을 공유하는 활동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어책은 챗터북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리딩레벨 1.0-4.0 수준의 챗터북을 구입해 교사가 제시하는 비슷한 수준의 시리즈 중에 학생들이 가장 호감을 보이는 책으로 책을 선정하고, 같은 책을 동시에 구입해 각자 자신의 책을 준비한다.

선정된 책을 모두 준비한 상태에서 교사와 해당 학생들이 둘러앉아 함께 읽기(Shared Reading)를 하고, 내용의 깊은 이해를 위해 개별 읽기를 한 후, 교사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함께 읽은 부분에서 독서퀴즈를 내고 친구들의 퀴즈에 답변하는 활동을 한다. 이 온라인 공간에서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책에 대한 내용 중 이해가 안 가거나 함께 생각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글을 올리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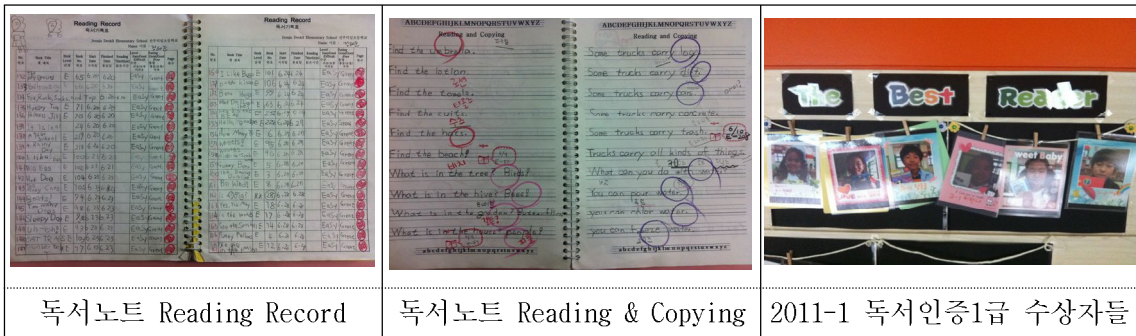
<표2> Early Fluent Reader단계 독서 순서

### Ⅲ. 연구 결과

#### 1. 연구 결과

##### 1) 독서노트 활용 결과

독서노트를 활용해 읽은 책들을 누가 기록한 결과, 7명 모두 50권 이상을 읽었다. 이 중 200권 이상을 읽은 학생 1명, 100권 이상을 읽은 학생이 1명이 있었다. 약 4개월 동안의 활동이라 제일 많이 읽은 여학생은 방과 후에 매일 2시간 이상 영어체험실에 남아 영어책을 평균 4~5권 읽은 셈이다.



##### 2) 인터넷 카페<sup>2)</sup> 활용 결과

하루 평균 10건 정도의 글이 업로드 되고, 현재 216건(2011.10.14.기준)의 게시글이 있다. 교사, 친구들과 그 날의 챕터를 함께 읽기(Shared Reading)를 한 후에 혼자 읽기(Independent Reading)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상 질문이나 독서퀴즈를 내고 답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 Ⅳ.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의 대상이 영어 조기교육 또는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3학년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1 학기에 실시한 Early Reader 단계 독서지도법 ‘집중듣기·따라 읽기’ 단계에서 선생님의 발음이나 CD의 음성을 들어도 어디를 읽는지 모르는 아이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발음을 들려주고 필요하면 한글로 발음을 적어주었다. 이렇게 3월부터 영어 독서를 꾸준히 한 결과 영어 단어를 보고 읽지 못하던 아이들이 책에서 본 기억과, 자연스럽게 습득한 Phonics 규칙을 동원해 영어책을 혼자서 읽어가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2. 독서노트에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기록이 한 권씩 쌓이면서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영어독서반에 소속감과 강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 다. 챕터북 진도를 나가면서는, Shared Reading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와 머뭇거리는 학생이 있으면 아는 친구들이 말해주거나 알려주면서 서로 배우고 있다.
  3. 같은 챕터를 읽으면서 저마다 내는 문제도 다르지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책을 살펴보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반복해서 읽고 내용을 심화해가는 과정을 스스로 겪고 있다.

2) <http://cafe.naver.com/readenglbooks>

4.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독서반 활동 상황을 안내해드리고 피드백 받는 과정에서 학교와 영어교육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책 선택이나 구매 과정에도 함께 참여하시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신다.
5. 인터넷 카페를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혼자읽기 과정에서 생긴 궁금증이나 독서퀴즈를 올릴 수 있고, 그 활동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또한, 친구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 Biodata

- 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2005)
- 전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과 수료(2008)
- 현 전주덕일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로 재직 중